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8주일
제31권 14호(가해) 2011.2.27

[묵상]



하늘을 나는 새들도, 들에 핀 꽃들도,
하느님께서 손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거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해결하지도 못할 걱정과
하지 않아도 될 내일의 고생까지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희는 하늘의 새들보다 아름다운 꽃보다
나에게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재물을 찾으면 하느님을 얻지 못하지만
하느님을 찾으면 나머지 모든 것도
곁들여서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시나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은
하느님이 만물의 주인 됨에 있으니
재물이 하느님께 종속되어
하느님이 주인이 된 재물은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랍니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아들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4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피노 (310) 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분 밥티스타 (310) 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 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 403-7345
사무실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김기정 파스칼, 최석원 안드레아
주 일	(연)윤재림 마리아, 박송희,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임병삼 마리아 & 이강봉, 윤희중, 홍숙녀 마리아, 양진호, 클로에 & 라파엘, 김두철 아브라함, 오창섭, 엄은섭 도로테오
낮 미사	(생)유현자 안나, 이정자 아그네스, 오신재 메히틸다, 이인숙 베로니카, 노성남 임마누엘, 정재민 브랜든, 이주산 요아킴 & 안나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9,14-15

화답송 ○내 영혼아, 하느님만을 고요히 기다려라.



내 영혼아, 하느님만을 고요히 기다려라.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구원이 오리니,
내 영혼 그분만을 고요히 기다리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희망이 오리니,
내 영혼아, 그분만을 고요히 기다려라.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체.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 내 영광 하느님께 있고,
내 든든한 바위, 내 피신처 하느님 안에 있네.
백성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4,1-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내네.○

복음 마태오(Matthew) 6,24-34

영성체송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87	241	230
봉헌	256	270	270
성체	356	309	309
파견	야곱의 축복	218	218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생명의 "증진"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새로운 법이 되시며, 자신을 선물로 나누어주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책임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다. 이처럼 자신을 나누어주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다.

77). 이 새로운 법은 또한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에 정신과 형태를 부여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시는 하느님의 풍성한 사랑의 요구에 따라 다른 모든 형제자매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증진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측면인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증진이라는 면에서도 모든 개인들에게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이 계명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본래 계약의 반향으로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 안에 울려 퍼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이성의 빛을 통해서 이 계명을 깨달을 수 있으며, 불고 싶은 대로 부시며(요한 3,8 참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고, 또 그들을 끌어들이시는 성령의 신비한 활동 덕분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랑의 봉사는, 우리 이웃들이 특히 약하거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이 언제나 보호받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이다. 우리는 비단 개인적인 관심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도 촉진시켜야 한다. 그 관심이란 인간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을 쇠신된 사회의 토대로 삼으려는 관심을 말한다.

우리는 모든 남녀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리고 불굴의 노력과 용기를 가지고 활동하여, 수많은 죽음의 표정으로 물든 우리 시대가 마침내 진리와 사랑의 문화가 남아주는 열매인 새 생명 문화의 건설을 목격하는 시대가 되게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여러분은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1 베드 2,9)

▶생명의 백성, 생명을 위한 백성

78). 교회는 복음을 하나의 선포로, 기쁨과 구원의 원천으로 받았다. 교회는 그것을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로, 성부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루가 4,18) 파견하신 그분이 주시는 선물로 받았다. (◆계속)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세 가지가 고민, 말다툼, 빈지갑입니다. 그중에서 빈 지갑이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탈무드의 격언입니다.

한 언론사에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당수가 “돈”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돈은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끔찍한 뉴스들을 보면 항상 돈이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사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쓸쓸합니다. 성경에서 돈과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무분별한 돈과 재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경계합니다. 돈이 무엇이기에 천륜마저 무시하게 하는 힘이 있을까요? 문제는 돈과 재물 자체가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인간의 욕심이 잘못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구체적으로 두 주인을 섬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재물이란 결코 내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잠시 맡고 있는 관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 관리했던 사람은 재물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큰 유혹이 놓여 있습니다. 재물과 하느님을 다 섬기고 싶은 유혹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요구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하느님을 선택하라는 우선적인 가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삶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일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규모 없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되고 걱정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걱정은 삶을 비참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괴로움을 미리 힘들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잘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느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그리고 행복을 주는 것은 결코 돈이나 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명해 졌습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박희자 마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이상철 크리스토퍼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울리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 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박해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을 독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3월 성 요셉 성월

◆ 성시간 : 3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P.V. 구역

- ◆ 병자 영성체 : 4일(금) 오전 10시부터
- ◆ 성모신심 미사 : 5일(토) 오전 8시30분

◆ 본당 설립30주년의 해 예비자 환영식

- 일시 : 오늘 주일(27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시간 : 3월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2층 교리실

◆ 제1회 백삼위 서예모임 작품전시회 폐막

- 전시기간 : 오늘 주일(27일)까지 강당
- 무료가훈 써주기 : 서예가협회장 일호 선생(한중일 초대작가)께서 본당 교우들을 위해 가훈을 무료로 써드립니다.

◆ 울뜨레아 2월 정기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27일) 낮미사 후 회의실(점심 제공)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간사 ☎(310)749-0276

◆ 본당 M.E. 셰어링(Sharing)

- 일시 : 오늘 주일(27일) 오후 6시, 강당
- 문의 : 김성현 유스티노 & 최연 루치아 본당 대표부부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3월9일)에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가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3월6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자모회 Early Bird 티켓 상품교환

- 일시 : 3월6일(주일) 선데이스쿨 수업후 점심시간
- 미사시간을 잘 지켜서 받은 티켓을 꼭 가져와서 예쁜 문방구용품과 약세서리 등을 교환해가십시오.

◆ 주일학교 사순 피정

- 일시 : 4월1일(금)~3일(주일) 오후 4시 성당 출발

- 장소 : 테메클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50(\$70, 3월14일 이후)
- 신청마감 3월21일 * 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사무실

◆ 고등부 견진성사

- 일정 : 5월 13일(오후 7시30분-9시): 리허설
5월19일(오후7시): Reflection
5월20일(오후7시): 견진성사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 (Lomita)
- 신청마감 : 3월6일
- 신청비 : \$30 (식사비 포함) *신청: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대상자 : 주일학교 10학년 이상으로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학생 *대상자는 위 3일일정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 파나마 선교후원을 위한 2차 헌금 감사합니다.

지난 주 파나마 선교후원을 위한 주일미사(특전미사 포함) 2차헌금에 본당 교우들이 \$5,000를 봉헌해주셨습니다. 선교사목을 하시는 김무웅 이나시오 신부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 LA 대교구 생명존중(Life & Dignity)주일 설정

LA 대교구 샌피드로 지역 담당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은 지역 내 모든 성당 교우들이 새로 결성된 Catholic Legislative Network(카톨릭 입법연대)에 적극 등록하여 가톨릭신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캘리포니아의 생명 존중 목소리"라고 표현됩니다. 다음 주일 주보에 가톨릭 입법연대와 생명존중 주일(3월12/13일)에 대한 설명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 기도를 통해 가톨릭 입법연대에 많은 신자들이 참여(등록)하기 바랍니다.

* 문의 : 강인모 테오도시오(CLN백삼위대표)

☎(415)730-4585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27일(주일) : 토런스 서 1반(육개장 \$3)
- 3월6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김성일 나경흠 엄세종 이영석 정동호 최희태 이크리스	강태홍 김완태 노세미 유영균 이영희 정열모 한연만	구분엽 김우용 노천수 옥근주 이용식 주용범 한창주	구자은 김 옥 박기돈 윤화경 이정훈 채양석 한희수	금영도 김종문 박상준 이남현 이현주 최수복 홍석인	김관기 김찬구 박음전 이상규 의 명 장춘수 최재은 황인종	김상규 김현숙 신순철 이숙화 장춘수 최현찬
합계 : \$5,685							
미사헌금 : \$3,253 특별목적헌금 : \$2,000(의명)							

성전헌금	강순복 김우용 노천수 이숙화 장춘수 최현찬	강태홍 김 옥 박기돈 이영석 정동호 최희태	구분엽 김종문 신순철 엄세종 이영희 이용식 정열모 한연만	구자은 김찬구 엄세종 이영희 이용식 이일길 주용범 한창주	금영도 김현숙 유영균 이일길 채양석 한희수	김관기 나경흠 윤화경 이현주 최수복 홍석인	김성일 노세미 이상규 의 명 최재은 황인종
합계 : \$3,010.80							
감사헌금 : 윤경옥 이형삼&이혜숙 리사이클링 : \$125.80							

남가주 소식

◆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3월5일(토) 낮 12시
- 장소 : Royal Vista 골프코스
- 참가비 : \$100(라운딩, 카트, 디너 포함) ☎ (323)734-4946

◆ 서부지역 한인 CLC 주최 특강 안내

- 주제 : "이냐시오 영성과 영신수련"
- 감사 : 최대제 신부(성 아그네스성당 주임, 예수회)
- 일시 : 3월20일(주일) 오후 2시30분~6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회관 ☎ (213)507-1144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영어퍼정

- 일시 : 4월21일(목)~24일(주일)
- 주제 : Come and See!(와서 보라!)
- 대상 : 선교사제 성소에 관심있는 20~31세의 남성
- 장소 : 텍사스주 엘파소의 성골롬반 선교센터
- 신청기간 : 3월6일까지 선착순
- 문의 : 성소담당 최용훈 요셉 신부 ☎ (323)388-7737

◆ 전신자 친구약 통독 9주간 암송 성구 ◆

- * 2월28일(월) 예레미야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될 것입니다.(42,6)
- * 3월1일(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부수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일이 바로 그렇다. (45,5)
- * 3월2일(수)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의 후손을 포로살이하던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46, 27)
- * 3월3일(목)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셨으니 어서 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위업을 선포하자.(51,10)
- * 3월4일(금) 예제키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한다.(2,17)
- * 3월5일(토)
네가 너의 그 모든 혐오스러운 것과 역겨운 것으로 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잘라내고 동정하지 않으며, 또한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5,11)
- * 3월 6일(일)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어마에 표를 해 놓아라.(9,4)

이번 주 단체 모임

2월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강순복 요세피나 850-6388 2/12(토)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김찬구 요한 530-7702 2/12(토) 오후 7시 강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2/18(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레스 989-0366	김대우 비오 378-8763 2/12(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상규 다니엘 424-263-4581 2/22(화) 오후 7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2/7(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조정석 수산나 433-9075 2/18(금) 오후 7시30분 강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박정람 마르시아 972-9193 2/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 크리스티나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3 2/18(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오혜숙 루시아 327-8035 2/11(금) 오후 7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이미령 엘리사벳 991-5895 2/12(토) 오후 7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종두 요한 544-1267 2/11(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2/11(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도원 다니엘 892-1213 2/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이영숙 수산나 544-5078 2/8(화) 오전 10시30분

흔한 이야기들...

따뜻한 이별의 정거장

삶의 마지막을 차분히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려는 이들이 잠시 머무는 이곳, 부산성모병원 10층 호스피스 병동. 사람이 태어나 살다 언젠가는 죽는 것이 평범한 진리임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이별을 맞이하는 이들의 슬픔 앞에서는 매번 숙연해지곤 한다. 그래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차분히 마지막을 준비해 드리는 순간이, 떠나는 이나 보내는 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아름다운 시간임을 확인하게 된다.

후두암을 앓다가 임종실로 옮기게 된 요한 할아버지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이면 임종을 맞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5일간 생존해 계셨다. 그 5일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성가를 부르고 대화하는 소중한 기억들을 남긴 채 가족들의 모든 슬픔을 승화시켜주고 떠나갔다. 힘들지 않았냐고 묻는 말에 평소 가족 피정이 소원이었던 그들에게 할아버지가 가족 피정을 선물로 주었다고 가족들은 말한다.

말기 췌장암으로 병동에 머물렀던 타라시오씨는 임종 10일전 병원 로비에 평소 본인이 찍어둔 사진들로 사진전을 열었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마지막 열정을 보여주며 가족을 비롯해 남겨진 모두에게 아름다운 삶의 에너지를 전해주고 떠나갔다.

이렇듯 호스피스 병동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가족적 돌봄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다. 호스피스의 선구자인 엘리사벳 퀴블러로스 박사는 “호스피스는 서로의 안녕을 빌 수 있는 시간이며, 분리된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때이며, 서로 용서를 주고 받으며, 풀어진 삶을 단정히 모으는 때이므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몇 달, 몇 주 혹은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곳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이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별을 준비한다. 서로 화해하고 삶의 마지막마다 맺힌 매듭을 풀고 “사랑합니다”, “용서하세요”, “다시 만나요” 하며 껴안고 떠나보내게 하는 호스피스 병동! 이 따뜻한 이별의 정거장이 있기에 죽음이라는 낯설고도 긴 여정 앞에서 떠나는 이, 보내는 이들 모두 정녕 외롭지 않다.

◆안윤문 베아트리카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팀장

♣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수전노처럼 모으고 개처럼 뿔어서라도
살 수도 손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갖고 싶다는 욕심만으로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상대의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안다면,
그럼조각 맞추듯
이 마음과 그 마음을 빈자리에 꼭 끼워 맞출 텐데,
각각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
순간에도 수만 수천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쉬운 듯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닐까?
수많은 사람 중에
친구로 동료로 다가서서 신뢰를 얻는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야 하는 법일진대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삶의 많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았다는 것이겠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머리로 계산해서
얕은 피로 얻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요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 의식 그 하부가
흔들렸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요.
이 상태가 되면 조건 없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진 것들을 댓가 없이 공유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나를 알아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행운인가.
행운은 사실 자주 찾아오지 않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삶의 길에 제일 좋은 방법이 된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 좋은글 중에서